

“中 인접 목포에 수산식품 수출단지 필요”

대양산단에 해양수산융복합벨트 조성 바람직

전남도 용역보고회 ... 수산물 생산 2025년까지 5조원

중국과 최단거리인 전남 서남권의 목포 대양산업단지에 사업비 1000억원 규모의 대단위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1차 생산에 머물러 있는 전남의 수산업을 중국시장을 겨냥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전남도는 1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학계 및 외부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 연구 책임자인 한광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박사는 “전남의 수산물 생산량은 전국의 47%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수산식품 가공률은 18%, 수산물 수출액 비중은 7.6%에 그쳐 앞으로 가공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원물 최대 생산지인 목포권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목포 대양산단 내 수산물 유통을 비롯한 가공, 연구, 지원시설 등을 종합한 클러스터형의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조성되면 수산 가공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수산식품산업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자유무역 확대와 건강식품 수요 증가로 수산물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발효돼 대중국 수산시장 개척을 위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됐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이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대응노력을 개발해 중앙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김갑식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올해 국비 확보를 시도했으나 해양수산부의 기본 계획 미수입 등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번 연구용역은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왜 필요한지, 왜 서남권에 조성해야 하는지를 잘 정리했고, 마침 정부에서도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국비 확보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해양수산융복합벨트 조성으로 해양수산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촉진하고, 기업 유치, 연구개발(R&D) 기능 등 연구기관을 집중화해 현재 2조원대의 수산물 생산액을 2025년까지 5조원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영석기자 chadol@kwangju.co.kr

귀국 임박 반기문 텃밭 ‘꿈틀’

‘반딧불이’ 세 불리기

19일 광주서 지지모임

유력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이 임박했으나 그의 고향이자 텃밭인 충북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반 총장은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 귀국할 예정이지만, 그가 태어나고 자란 음성과 충주에서는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최순실 국정 농단 게이트가 터지기 전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반 총장 팬클럽 ‘반딧불이’가 본격적인 조직 구축에 나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반딧불이’ 총지회는 이달 중 창립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지금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모집한 충주 지역 반딧불이 회원은 70여명,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30~40명 수준이라고 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달 25일 반 총장 고향인 음성에서 열린 반딧불이 충북본부 창립대회는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 총장 모교인 충주고 동문회도 최근 시국을 의식한 듯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 반기문 평화랜드와 반 총장 생가 앞에 있던 동상도 우상화 논란이 일면서 올 하반기 잇따라 철거됐다.

이런 와중에도 반 총장 생가와 본가인 충주 반산재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생가에는 평일 150명 안팎, 주말에는 200~300여명이 방문하며, 반산재에도 하루 50명가량이 찾는다.

한편 반기문 총장 지지자들이 오는 19일 광주에서 모임을 갖는다. 1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광주 5·18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산악회를 통해 모집한 충주 지역 반딧불이 회원은 70여명,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30~40명 수준이라고 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이영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일시 : 2016. 12. 13(화) 14:00 장소 : 국회 귀빈식당

긴급 시도지사 간담회 1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긴급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부터), 이낙연 전남도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윤정현 광주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내년 예산 4조398억 예결위 통과

광주FC 40억·출산장려책 5억 반영 ... 15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

광주시 2017년 예산안 4조398억원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FC운영비가 10억원이 증액돼 40억원으로 늘었으며 출산장려지원책도 5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반면 시민참여예산 등 상임위 안대로 요구액보다 절반가량이 깎이는 등 대체로 상임위안이 받아들여졌다.

13일 광주시의회 예결위에 따르면 2017년 광주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일반회계 3조273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2318억원, 기타 특별회계 5346억원 등 4조397억5000만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시의 편성요구액 4조416억원보다 19억원 정도 감소했다. 올해 세입·세출 예산 총액(4조605억원) 원보다는 약간 줄었다.

시의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시민참여예산은 33건 58억원이 삭감됐다. 예산 요구액은 55건 110억원이었는데 상임위 삭감안이 예결위에서도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자치구별 하부조직 구성으로 물의를 빚었던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의 운영비는 요구액 4억5000만원에서 2억원만 반영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北 석탄 수출 철저 검증 공조 한·미·일 6자회담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2321호)의 핵심인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검증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결의 2321호의 북한산 석탄 연간 수출 상한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자금원 차단 등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뉴욕과 각국 수도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정보교관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영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민주 광주시당, 박대통령 퇴진 1만433명 서명 받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이형석)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 진행 결과 1만433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11월2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운동본부’ 출범식 이후 12월10일까지 20여일 간 집계한 결과다.

이번 서명운동은 광주시당 사무처와 광주시내 8개 지역위원회, 선출직 공직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지역위원회별 주요 거점과 총장로 일대 등에서 진행됐다.

이형석 광주시당위원장은 “서명운동

을 진행한 결과 시민들의 박근혜 퇴진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현재의 조속한 인용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서명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민주 광주시당은 지난 11월 3일 상무위원회를 통해 전국 시·도당중 최초로 ‘박근혜 퇴진 방침’을 의결했으며, 이후 ‘박근혜 퇴진 1구1현수막 달기 운동’ ‘피켓시위’ ‘서명운동’ 등 박근혜 대통령 즉각퇴진을 위한 각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엔젤·빛가람 펀드로 중기 육성 CEO·투자자 초청 설명회

전남도는 지금까지 ‘빛가람 중소기업 펀드’에서 순연, 합금연을 생산하는 장성 소재 이맥스&C 등 4개 업체에 60억원을 투자·지원했고, 앞으로도 펀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임재영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전남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해 경영 여건이 열악한데다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재, 기술개발, 자금, 수출, 판로 등 다각적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영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터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극환

추천1. 무안→규슈/오사카 직항 전세기

★**초특가 실속규슈여행!** 499,000원
 (단 3회! 12/19, 12/22, 12/25)

★**고품질 북큐슈여행!** 699,000원
 (단 3회! 12/19, 12/25, 12/28)

규슈 출발일: 12.16~2.26/3박4일

산악회를 위한 규슈올레길! 548,000~
 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838,000~
 기타큐슈 나가사키/우레시노 838,000~

오사카 출발일: 1.30, 2.2/3박4일

오사카/나라/교토/고베 1,168,000~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1,16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298,000~

오사카 설연휴: 1.27/3박4일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1,38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458,000~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초특가 12/28, 1/9★**

[육로]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949,000~
 출발일: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비엔티엔/루앙프라방 1,498,000~
 [항공]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1,548,000~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1,149,000~
 [골프]다낭 골프 54홀 1,649,000~

※공통포함사항: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박,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팀

※공통불포함사항: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권, 클럽 중식 불포함)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699,000~
 [풍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799,000~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899,000~
 [풍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999,000~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A320-200 / 좌석: 150석

★한별제품★
 한별에비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편도 50,000원부터~
 무안→오사카: 편도 98,000원부터~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3-1호**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험 가입(해외상품:1억원 국내상품:5천만원) 관광진흥법제정/공공 및 부부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차/기차 등 2인 이상은 환승 및 항공요로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제 가입업체 ※역시 계약서(해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경비(호텔,기사/가이드/교통사,선박관,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용에 따라 다름

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